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도에 급락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한국 증시 장중 리뷰:

외국인 매도 확대 속 양대지수 모두 연저점 경신

- 국내 주요 지수 급락. 반도체 업황 우려 및 경기 침체 경계심 작용. 주말사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 크게 위축된 영향도 반영.
- 달러/원이 장중 1294원대를 돌파하며 연내 최고치 기록.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도 확대
 - 코스피, 코스닥 모든 업종 하락세인 가운데 특히 전기전자업종 낙폭 확대. 삼성전자는 2020년 11월 4일 이후 장중 최저치 기록. 인텔이 차세대 CPU '사파이어 래피즈' 생산 일정 연기 발표로 IT업황 우려 확대
 - 롯데케미칼 상승. 중국 시노펙 공장 화재로 반사이익 기대감
 - 카카오게임즈 급락. 2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전망

아시아 증시 장중 리뷰

중국 증시, LPR 금리 동결 발표에도 부동산 업황 회복 기대 확대

- 중국 증시 혼조세. 상해종합지수는 석탄, 정유주 하락에 따라 보험권 등락 반복. 전기차, 클린에너지, 가전, 건축자재 업종 강세로 심천 지수 전반 강세 견인. 지난주 견조한 매수세 유지했던 외국인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확대 중
- 금일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 동결 발표. 이미 5월 5년물 15bp인하 단행으로 2개월 연속 LPR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 향후 추가 인하 여력 충분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5월 경기 저점 통과와 시장 내 유동성 증가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분석
 - 618 징동데이 종료. 징동은 2022년 618 기간 매출 성장률은 10%로 3년 평균 성장률 27~34%보다는 하회했지만 가전, 스마트폰, 화장품 등 개별 품목별 판매 급증 확인. 핀뉘뉘 플랫폼에서는 쇼핑행사기간 가전분야에서 에어컨은 메이디그룹, 냉장고와 세탁기는 칭다오하이얼이 1위 차지. 화장품도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세 나타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가전, 음식료, 화장품 관련주 강세
 - 중국 시노펙(600688.SH)의 상하이 화재사건으로 정유주 전반 하락. 1명 사망, 1명 부상으로 현재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중이라고 밝힘
- 홍콩 주요 지수 하락 출발 후 본토 증시 상승에 낙폭 축소하며 혼조세 전환. 샤오펍, 니오 등 전기차 강세. 부동산 업종 또한 강세. 5월 월간 부동산 판매 및 신규 준공 증가율 변곡점 나타나면서 부동산 업계 바닥 이미 확인했다는 평가 반영

미 증시 전망

불편한(?) 휴장

- 노예해방(Juneteenth) 기념일로 휴장: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노예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준틴스(Juneteenth)'는 6월(June)과 19일(Nineteenth)을 합쳐 부르는 말. 1865년 4월 9일 남북전쟁 당시 남부의 항복으로 흑인 노예가 해방되고, 두 달 뒤인 6월 19일 텍사스 갤버스턴의 노예들이 미국 노예 중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 소식을 들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을 미국의 11번째 연방 휴일로 지정
- 불편한(?) 한 주 지속될까? 지난 주 FOMC 전후로 확대된 미 증시의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 커 보이는 데, 우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강경해지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24년 1분기

까지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72%나 보고 있고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인 James Gorman은 올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50-50으로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내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40%에 육박한다면 연준이 여전히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뒤처져 추격 게임을 하고 있다고 평가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2일(상원), 23일(하원)에 출석해 지난 금요일,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 해당 보고서에서 “강력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가 안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혀.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7월 FOMC 회의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7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재차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커져

여기에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관련 지표인 기존주택판매(화), 신규주택판매(금)가 발표될 예정. 시중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5.78%로 전주대비 55bp나 급등하며 주간 변동폭 기준으로 198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 또한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주에만 거의 35bp 범위에서 거래되며 국채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ICE BoFAML MOVE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이외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 유로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루기 위한 EU정상회담이 23~24일 열릴 계획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